

자료명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
엠바고	1월 14일(수)자 朝刊부터(통신, 인터넷 등은 1/13(화) 12:00부터)
문의처	경제정책팀 김현수 팀장(010-3751-8953, 02-6050-3442), 하서영 연구원(344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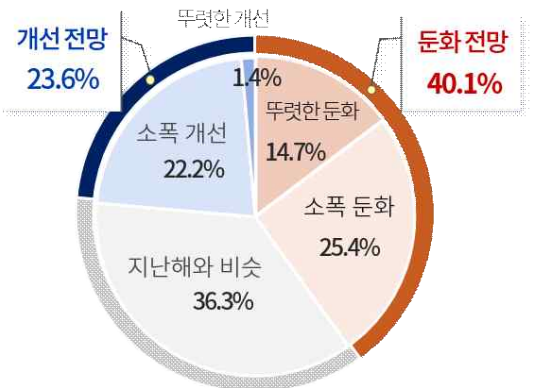
## 새해 제조업 경영기조는 ‘신중 모드’.. 기업 10곳 중 8곳 ‘유지’ 또는 ‘축소’ 경영

- 내수 회복 기대에도 제조기업 40%, 새해 한국경제 ‘지난해보다 둔화’ 전망.. ‘개선’ 전망은 23%
- 2026년 경영기조는 기업 79% ‘유지’ 또는 ‘축소’ 방침.. 2년 전보다 경영기조 보수화
- 산업별 경영 온도차 뚜렷.. 호황 예상되는 반도체·화장품은 ‘확장경영’ 택한 비중 높아
-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은 ‘고환율’... 핵심 정책과제는 ‘환율안정화’, ‘국내투자 촉진’, ‘통상대응’ 順

수출 및 투자지표의 회복흐름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올해 경제흐름을 신중하게 전망하며 안정 중심의 경영기조를 고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가 최근 전국 2,208개 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이 바라본 2026 경제·경영 전망’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업 40.1%가 올해 전반적인 한국경제 경기흐름이 지난해보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어서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예상한 기업이 36.3%로 두 번째로 많았다. ‘전년대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23.6%로 둔화를 예상한 기업의 절반수준에 그쳤다.

<그림1> 기업이 본 2026년 경기 전망



기업들의 신중한 경기전망은 올해 경영계획에도 반영되었다. 2026년 경영계획 핵심기조를 묻는 질문에 기업 79.4%가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으로 답했다. 이중 ‘유지경영’을 선택한 기업 비중이 67%에 달해 ‘확장경영’을 택한 기업(20.6%)보다 3배 이상 많았다.

2023년 12월에 동일한 방식으로 ‘2024년 경영기조’를 조사했을 때는 ‘유지경영’ 또는 ‘축소경영’을 선택한 기업이 65.0%였다. 올해는 2년 전과 비교해 보수적 경영기조 답변이 14.4%p 상승한 결과로 제조업 전반에서 안정과 리스크 관리에 무게를 두는 모양새이다.

<표1> '26년 및 '24년 경영기조 비교

구분	2026년 경영기조	2024년 경영기조	증감
축소경영	12.4%	9.5%	+2.9%p
유지경영	67.0%	55.5%	+11.5%p
확장경영	20.6%	35.0%	-14.4%p

## 산업별 경영 온도차 뚜렷.. 호황 예상되는 반도체·화장품은 ‘확장 경영’ 택한 비중 높아

이러한 상황에서도 업황 전망이 좋은 산업에서는 확장적 경영행보를 보이는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올해 호황이 예상되는 반도체 산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기업(47.0%)이 경영계획 기초를 ‘확장경영’으로 택했으며, 제약·바이오와 화장품 산업도 ‘확장경영’을 택한 기업비중이 각각 39.5%, 39.4%로 전체 평균을 넘어섰다. 반면, 내수침체, 저가공세 등으로 부진한 섬유, 철강 산업은 ‘축소경영’을 채택한 기업 비중이 각각 20%, 17.6%로 가장 높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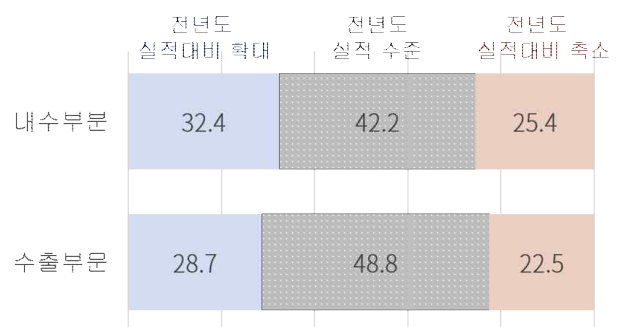
〈표2〉 주요 업종의 2026년 경영계획 핵심기조

구분	전체	반도체	제약·바이오	화장품	철강	섬유
축소경영	12.4%	2.0%	10.5%	9.1%	17.6%	20.0%
유지경영	67.0%	51.0%	50.0%	51.5%	68.9%	70.4%
확장경영	20.6%	47.0%	39.5%	39.4%	13.5%	9.6%

경영계획 수립에는 산업별 업황 회복세 및 비용 수익구조의 차이가 주로 영향을 미쳤다. 올해 경영계획 수립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친 핵심 변수로 기업 절반 이상이 ‘경기·수요 전망’(52.0%)을 꼽았고 이어서 비용 및 수익성 요인(25.9%), 기업 내부사정(7.6%), 정책·규제환경 변화(7.5%), 대외 통상리스크(7.0%)가 뒤를 이었다.

특정업종에 회복세가 쏠리는 등 우리경제의 개선흐름이 여전히 불확실한 가운데, 기업들은 2026년 실적목표를 확대하기보다는 기존 실적을 유지하는데 집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실적 목표를 어느 수준으로 설정했는지 묻는 질문에,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전년도 실적수준’을 목표로 한다고 응답했다. 목표치를 확대하거나 축소했다는 답변 중에서는 내수와 수출 부문 모두 ‘확대’라는 답변이 소폭 높게 나타났다.

〈그림〉 작년 실적 대비 목표치 수립 수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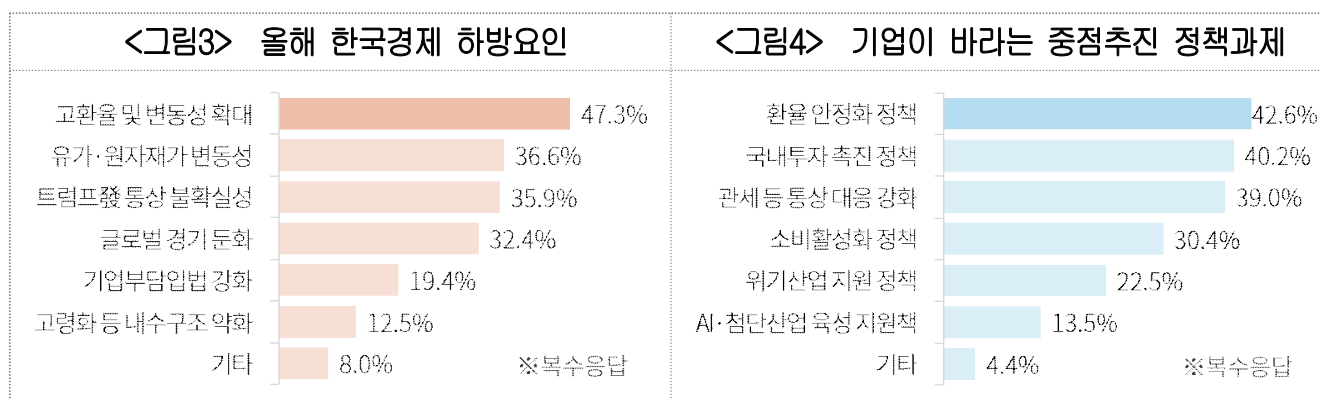
※지나해 달성한 실적과 비교하여 설정한 목표치 (단위: %)

## 한국경제 리스크 요인은 ‘고환율’.. 핵심 정책과제는 ‘환율안정화’, ‘국내투자 촉진’, ‘통상대응’ 順

올해 우리경제가 회복의 갈림길에 있는 가운데, 절반 가까운 기업들이 올해 한국경제 성장을 가장 제약할 리스크 요인으로 ‘고환율 및 변동성 확대’ (47.3%)를 지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유가·원자재가 변동성’ (36.6%), ‘트럼프發 통상 불확실성’ (35.9%), ‘글로벌 경기 둔화’ (32.4%) 순으로 응답하며 기업들은 주로 대외변수로 인한 위협 우려가 컸다. 한편 ‘기업부담 입법 강화’ (19.4%), ‘고령화 등 내수구조 악화’ (12.5%) 등 국내요인을 지목한 기업도 적지 않았다.

기업들이 고환율을 한국경제 리스크로 가장 우려한 만큼 환율 안정에 대한 요구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경제 활성화 및 기업 실적 개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해야할 중점 정책으로 기업 42.6%가 ‘환율 안정화 정책’을 선택했다. 이어서 ‘국내투자 촉진 정책’ (40.2%)과 ‘관세 등 통상대응 강화’ (39.0%), 소비활성화 정책’ (30.4%)도 높은 비중을 차지해 특정 영역이 아닌 다방면에서 기업들의 정책 요구가 확대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위기산업 지원정책’ (22.5%), ‘AI·첨단산업 육성 지원책’ (13.5%)에 대한 응답도 적지 않아 산업의 구조전환 및 경쟁력 강화에 대한 정책 필요성도 함께 제기됐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올해 수출과 내수가 동반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산업별 회복격차와 고환율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인해 기업들의 신중한 경영 기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최근 정부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소비·투자·수출 전반에 걸친 활성화 대책을 마련한 만큼 정책의 효과가 실질적 성장 모멘텀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업종별 맞춤 지원과 더불어 과감한 인센티브 및 규제 개선이 병행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 조사 개요 >

- 조사 기간 : 12/1(월)~12/12(금)
- 조사 대상 : 전국 제조업체 2,208여개 사
- 조사 방법 : 이메일 및 팩스